

하반기 달라지는 농림·해양·수산 정책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서 경우 제외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하고 농어촌 민박 운영 때 조식을 제공할 수 있게된다. 또 7월부터는 종류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돼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해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기획재정부는 각 정부 부처의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27개 부처의 총 136건의 달라지는 제도 중 농림·해양·수산분야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한다.

▲농어촌 민박 조식 제공 허용, 안전 기준 강화
=농어촌 주민의 소득 향상과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민박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농어촌 민박 운영 시 이용객을 대상으로 음식의 판매가 불가능했지만,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7월7일부터 농어촌 민박에서도 조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농어촌 민박의 안전·서비스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숙박과 식품위생·소방 안전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민박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실시하는 서비스·안전 교육 이수율 의무화 한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시행=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재산수준 등(보험료 부과점수)을 고려해 보험료 차등 지원을 시행한다. 지금까지 소득·재산수준에 관계없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정률(28%)로 지원했으나, 고소득·고액 재산가 일수록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상황이 발생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관련 법과 사업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올 8월부터는 보험료 부과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범위 확대=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의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또는 최근 2년 이내 암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하

는 농업인에게 지원(최대 10일)하는 사업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대상이 되는 통원치료 중인 중증질환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국산 미곡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7월부터 국산과 수입산 미곡간 혹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간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혼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발생해 앞으로는, 국산 미곡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을 혼합해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을 혼합해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면세유서 경우 제외=올해 7월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유류의 공급을 제한한다. 경우 이외에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그 밖의 면세 유종인 등유, 중유, LPG와 부생연료유는 그대로 계속 공급하며, 난방기가 아닌 그 밖의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 곡물건조기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을 공급한다.

▲2015년 FTA 피해보전직접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2015년도 FTA 직접피해 지원품목으로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9개 품목은 피해보전직접불금,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5개 품목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2개월 동안(8월17일까지) 거주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개정·시행=농업분야와 산림분야 해외자원개발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을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으로 개정해 21일 시행한다.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관련 업무를 농업분야와 산림분야로 구분해 정비하고, 국제협력사업의 범위를 외국의 입업·산촌지역 개발까지 확대했다.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 등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부기등기(附記登記) 관리=7월부터 농업보조금으로 지원된 재산은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사실과 임의처분 제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원재산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를 통해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정보를 명시하게 함으로써 보조사업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세금으로 지원한 농식품 관련 시설이 목적대로 활용돼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중소기업 전용홈쇼핑' 개국=올해 7월,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에 획기적 역할 수행할 '농식품·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을 개국한다. TV 홈쇼핑은 생산자-소비가 직접 거래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농산물 직거래에 최적화되었으며, 고유 채널을 활용해 정해진 시간에 지속적인 판매가 가능한 안정적인 농식품 유통 시스템이다. 각 지역의 농축수산물과 농촌관광 상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일 광주시청사 1층 시민의 숲 내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이근 농협광주지역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개장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은 서광주농협(조합장 문병우) 등과 함께 광주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로컬푸드직매장을 개설했다. <농협광주지역본부 제공>

김재수 aT 사장의

푸른농촌 이야기

'6차 산업'과 창조경제

최근 6차 산업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창조경제도 강조된다. 전남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최근 출범했다. 전남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농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중심으로 창조경제 영역을 농수산식품 분야까지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필자도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직접 둘러보면서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추구하는 창조경제 추진에 큰 감명을 받았다. 농수산물 생산부터 가공, 유통, 수출, 마케팅, 홍보 등 전 과정에 걸친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전국의 농식품 유관기관, 벤처창업 기관들이 참여해 농식품 벤처창업을 지원하고, 전문가들이 창업 멘토 역할을 한다.

과거의 전통 농업은 생산중심의 1차 산업으로 창조와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 이제 전통 농업이 변하고 있다. 최근 농업은 생산과 유통, 가공, 수출, 식품안전, 생태 등 전방위에 걸쳐 융복합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목된 6차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6차 산업 마인드로 농업은

성공시킨 사례는 매우 많다. 과거 사양산업으로 간주되던 양잠산업이 화장품, 치약, 비누뿐만 아니라 인공 고막이나 인공뼈 개발까지 이를 전방이다. 1g당 가격이 금보다 비싼 종자, 일 반 쌀보다 섬유질이 2~3배 가량 많은 다이어트쌀, 벌침을 이용한 화장품, 유해가스가 나오지 않는 옥수수 바이오에너지, 태양광 인공위성을 통한 에너지 확보, 소리와 빛을 이용한 병해충 퇴치, 지열에너지를 활용한 농작물 재배 등 농업분야의 기술혁신과 창조적 혁신은 끝이 없다. 화산섬인 제주의 지열에너지를 활용해 감귤과 파프리카 생산에 적용한 결과, 연간 운영비의 40%가 절감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식품산업과 연계를 통해 기능성식품, 건강식품, 웰빙식품이 만들어지고 전도유망한 수출산업으로 변화한다. 농식품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대된 것도 생산을 넘어 가공, 수출로 이르는 6차 산업적 관점이 작용했다.

전남은 전국 최대 농경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

고 우리나라 대표 '농도'이다. 마늘, 양파, 고구마, 김 등 49개 품목의 농수산물 생산이 전국 1위 지역이다. 농업 중심의 창조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최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수출 여건도 잘 갖추고 있다. 조미김, 자반, 녹차, 한과 등 광주전남의 농식품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다. 현지인 입맛에 맞게 가공한 전락상품을 만들고 지역 특산물인 배, 울금 등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면 성장가능성은 엄청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확대될 중국시장을 겨냥한 '스타상품'도 기대된다. 농식품산업과 관광산업이 연계발전하면 광주·전남은 세계적 관광지 될 수 있다. 뛰어난 자연환경과 문화유적에 전통음식을 가미한 지역 관광상품은 광주·전남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세계적인 투자전문가 짐 로저스가 "농업은 향후 가장 유망하고 잠재력이 뛰어난 산업 중 하나"라면서 "MBA가 무슨 필요가 있나. 당장 농대로 가라"고 했다. 주요 선진국들도 농업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다.

농업분야가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려면 새로운 접근과 인식이 필요하다. 창조경제 시대의 농업은 과거 인식에서 탈피하는 것이 우선이다. 전통적인 '먹는 농업'에서 벗어나 '기능성 농업', '보는 농업', '관광농업', '의료농업', '생명농업', '신소재농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해야 한다.

전 세계 대학생 올림픽 광주유니버시아드

7.3.~7.14

고운라피네가 함께 응원합니다

고운의 새로운 브랜드 "고운라피네"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고운시티아이(주), 고운주택(주)